

1~7위 승차 6경기... 순위 '롤러코스터'

프로야구 중상위권 경쟁 치열
2015년 5.5경기 차 이후 10년 만
승률 높이는 확실한 꼴찌는 여전
롯데·KIA 2경기 차 막상막하
0.5~1경기 차 나는 팀도 수두룩

프로야구 2025시즌 중상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25일 경기에서 1위 한화 이글스, 3위 롯데 자이언츠 상위권 팀들이 나란히 패하고 4위 KIA 타이거즈, 5위 삼성 라이온즈가 이기면서 중상위권 간격이 더 좁아졌다. 25일 기준 순위에서 1위 한화가 43승 1무 30패, 7위 SSG 랜더스가 36승 3무 35패로 1위부터 7위 사이 승차가 6경기에 불과하다. 3위 롯데(41승 3무 32패)와 4위 KIA (39승 2무 34패)만 2경기 차이가 나고 다른 팀들은 모두 바로 윗 순위 팀과 승차가 0.5경기 또는 1경기에 불과하다. 하루 이기고 하루 지면 순위가 정신 없이 바뀐다.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관중들로 꽉 차 있다. 이날 경기는 전석 매진됐다.



스킨스 미저로우스키

밀워키 미저로우스키 MLB 영건 광속구 '킹'

제이컵 미저로우스키(23밀워키 브루어스)가 폴 스킨스(23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영건 파이어볼러 선발 대결'에서 판정승했다. 투구 내용도, 구속도 미저로우스키가 더 좋았다. 미저로우스키는 26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 8탈삼진으로 막고 시즌 3승째를 챙겼다. 2022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63순위로 지명돼 밀워키와 계약한 미저로우스키는 올해 바리케에 데뷔한 이래 3번 등판해 모두 승리를 챙겼다. 스킨스는 4이닝 동안 4안타를 맞고 3실점 해 시즌 7패(4승)째를 당했다. 2023년 전체 1순위로 피츠버그에 입단한 스킨스는 지난해 11승 3패, 평균 자책점 1.96의 호투로 내셔널리그 신인 왕에 올랐다. 올해도 승운은 따르지 않지만, 평균 자책점 2.12로 호투 중이다. 둘은 시속 100마일(약 161km)을 넘나드는 빠른 공을 던지며 MLB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8위 NC 다이노스도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삼성과의 승차가 3경기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 올해 순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는 같은 기간 예전 시즌 순위표와 비교해 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작년의 경우 6월25일 기준 1위와 7위의 승차는 10.5 경기였다. 1위 KIA가 45승 2무 30패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7위는 한화의 34승 2무 40패였다.

2023년의 경우에도 6월25일 기준 1~7위의 승차는 11.5 경기였다. 2022년에는 같은 기간 1~7위 승차가 13.5 경기로 올해의 두 배가 넘었고, 2019년에는 심지어 19.5경기나 벌어졌다. 10개 구단 체제로 확대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월25일 기준 1~7위 승차가 가장 작았던 기록은 2015년으로, 당시 1위

NC(40승 1무 28패)와 공동 6위였던 KIA, SK 와이번스(이상 34승 33패)와의 승차는 5.5 경기밖에 되지 않았다. 2015시즌과 올해의 공통점은 확실한 최하위 팀이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1군 무대에 데뷔한 kt wiz가 6월 25일까지 20승 52패, 승률 0.278을 기록하며 당시 9위였던 LG 트윈스에도 12.5

경기 뒤진 10위였다. 올해는 키움 히어로즈가 22승 2무 54패, 승률 0.289로 속칭 '바다'를 갈아주면서 7위 팀도 승률 5할을 넘기는 이유가 됐다. 2021년도 올해와 비슷하게 순위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6월25일 기준 1위 kt(38승 27패)와 7위 두산 베어스(33승 34패)의 승차도 올해와 같은 6경기였다.

이번 시즌 KBO리그는 한화·LG·롯데·KIA·삼성 등 '인기 팀'들이 상위권에 줄을 서 있고, 두산도 지금은 9위지만 최근 10경기에서 5할 승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등 치열한 순위 경쟁이 2년 연속 행에도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카데일리·연합뉴스

“팀에 꼭 필요한 선수”... 기성용, 박태하 감독 리브콜에 포항 유니폼

올해 말까지 계약이던 FC서울과는 결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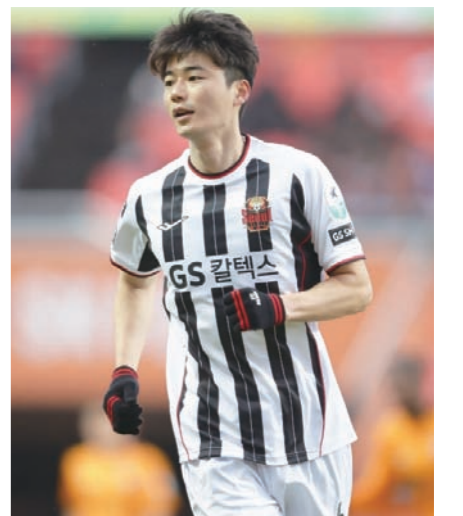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을 떠난 기성용(36)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진 포항 스틸러스의 박태하 감독이 베테랑 미드필더와 동행할 시간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태하 감독은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포항 입단을 앞둔 기성용에 대해 “우리에

게 꼭 필요한 선수이고 충분히 도움이 될 선수”라고 주저 없이 말했다. 서울은 전날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의 인연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기성용과의 이별을 발표했다.

기성용도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과 결별하고 포항에서 새 출발하기로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저를 필요로 하는 팀을 기다리고 있을 때, 포항 박태하 감독님께서 가장 먼저 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고 이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품어 주신 박태하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기성용의 포항 입단 절차가 마무리된 것

이 아니라서 박 감독은 조심스러워했다. 다만 박 감독은 “최근 기성용이 서울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우리 팀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중우·한찬희의 부상 등으로 미드필더 자원의 보강이 필요했던 팀 사정도 맞물렸지만 기성용의 기량이나 경험은 리그 상위권에서 경쟁 중인 포항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게 박 감독의 판단이다. 4월12일 대전하나시티즌전이 올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기성용의 경기력에 대한 주위의 우려를 잘 안다면서도 박 감독은 “최근 훈련도 하고 경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경기장 안에서 보여주는 리더로서 역할이나 경기를 조절하는 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선수라 경기력 부분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성용이 FC서울에서 뛰던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한원재 지음 | 31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녘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환(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